

아동 삶의 질 관점에서 본 OECD 국가 비교

박 정 민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) 진 미 정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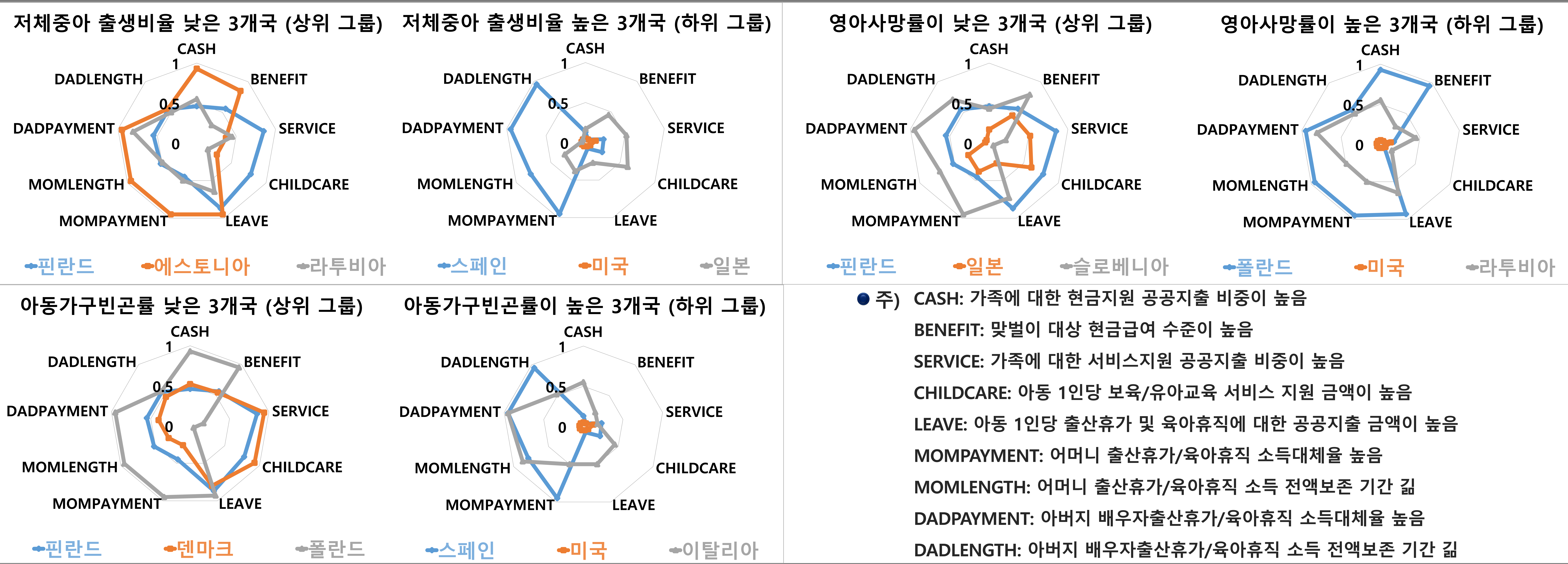
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

- 연구 목적: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아동 삶의 질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규명하고, 이들 국가가 가진 가족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
- 연구 문제: 건강과 경제 측면의 아동 삶의 질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는 어디인가?

연구 방법

-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: OECD Family Database와 Child Well-Being Data / OECD 20개국 대상
- 측정 도구
 - 1) 아동 삶의 질: 저체중아 출생비율, 영아사망률, 아동가구빈곤율
 - 2) 가족정책 - 현금지원 정책(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,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)
 - 서비스지원 정책(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, 아동 1인당 보육/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)
 - 휴가지원 정책(아동 1인당 출산휴가/육아휴직 공공지출 금액, 어머니와 아버지의 출산휴가/육아휴직 소득대체율, 소득 전액보존 출산휴가/육아휴직 기간)
- 연구 방법: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, 아동 삶의 질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위, 하위 3개 국가의 가족정책 퍼지점수 비교

연구 결과



결론

- 핀란드: 서비스, 휴가 공공지출 비중이 높으며 아동 삶의 질 모든 측면 높음 / 미국: 가족정책이 전반적으로 0에 가까우며 아동 삶의 질 모든 측면 낮음.
- 폴란드: 영아사망률은 높지만, 아동가구빈곤률이 낮음. 서비스지원 정책이 소극적임에도, 현금지원이 활발하고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이며 휴가에 대한 공공지출이 적극적.
- 라투비아: 영아사망률은 높지만, 저체중아 출생비율은 낮음. 어머니의 출산휴가/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,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음.
- 아동 삶의 질이 높은 국가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, 하위그룹에 비해 가족정책이 1에 더 가까운 양상.
-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정책의 원인조합에는 공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높은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과 높은 아동 1인당 보육/유아교육 서비스 지원 금액. 즉, 가족과 아동에 대한 활발한 서비스지원이 중요하며, 이것이 높은 아동 삶의 질로 연결됨을 시사.